

도록 하고 있다. 은못축의 사용은 기둥 위에 놓인 柱頭와 包材 사이 사 이에 配置된 小果 밑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帶鐵의 사용은 단 한군데도 없었고 鐵釘은 椽木을 道里 위에 얹을 때 하나 걸러씩 사용하였으며 平交台와 椽合에도 鮮釘을 막아 椽木과 緊結 시키고 있다.

이상은 捌相殿의 木部 接合(이음과 맞춘)을 調査한 大略의 것이다. 이것을 알기 쉽게 綜合하여 表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분류	種	部材名	補強材	備考
음	긴축이음	三層高柱 四天柱 心柱(刹柱)	비너장 비너장	垂直材 垂直材
	十字雙축이음	心柱(上部)		垂直材
이	열장이이음	道里 長舌		水平材 水平材
	나비은장이이음	道里 十字木(心柱上)	方形은목축	水平材 水平材
출	四掛맞춤	一~五層柱 四天柱		垂直材 垂直材 垂直材와 垂直材와
	열장맞춤	諸工과 昌防 椽禱과 長舌		水平材 水平材
	十字맞춤	道里 長舌 十字木(心柱上)	方形은목축 方形은목축	水平材 水平材 水平材
	내림턱열장맞춤	귀틀(五層)	方形은목축	水平材
맞	통맞춤	방고과 명에 창 방고과 명에 창 四天柱와 壁中 防과 格양	막이산지 방두산지	垂直材와 垂直材와 垂直材와 垂直材와 斜材
	기둥과 추너	방고과 명에 창		垂直材와 垂直材와

가름장맞춤	一層柱와 下防	垂直材와 水平材
椽歸	一~四層의 문틀과 창틀	垂直材와 水平材

清州 雲泉洞 出土 金銅菩薩 立像과 銅鐘

金 永 培

忠清北道 清州市 雲泉洞 三七六一번지 崔龍文氏 소유 新築家屋의 단 장工事중 發見된 一連의 佛像과 佛具類가 一九七〇年 四月 十日 公州博 物館으로 移送되어 保管하고 있는데 出土遺物은 모두 귀중한 作品들이어 서 筆者가 現地踏査를 한바 있으므로 概要를 이곳에 紹介하는 바이다.

發見場所를 略記하면 清州市內를 南北으로 흐르고 있는 無心川의 西岸 을 따라 조금 北上하면 龍華寺址가 있고 이곳에서 다시 約六百m 北上 하면 바로 無心川邊에 清州市 雲泉洞 一帶가 나서는데 小地名으로는 清 原郡 四州面 山直말(서들)이라고 하는 비교적 넓은 平野地帶가 展開된 다. 이곳 三七六一番地 田四三坪에 垜地를 造成하고 崔龍文氏가 家 屋을 新築하였으며 단장工事を 하기위하여 基礎溝를 파내려가는데 道具 에 쇠부치가 닿는 소리가 나서 조심스럽게 파본결과 一括의 佛具가 發 見되었다는 것이다. 埋沒狀態는 地表에서 約七十cm 밑에 梵鐘을 뉘어 놓 고 그 속에 金鼓一口 金銅菩薩一軀 香坑二個 鑲製鉢二個 등이 있었 는데 香坑과 鑲鉢은 完全히 부식되어서 原形을 알 수 없을 정도이고 銅鍾 과 佛像 飯子는 비교적 잘 保存되었으며 優作에 屬하는 作品들이다. 이 一帶에서는 無數한 瓦片과 高麗磁器片들이 散在하고 있어 過去에 寺址

있던것을 如實히 말해주기도한다. 發見遺物을 詳記하면 다음과 같다.

一、銅 鍾

銅製の 中形梵鍾으로서 素文의 口緣帶를 두르고 胴體乳廓間에는 二個의 撞座가 있다. 이 圓形撞座는 内外의 二區로 分하여 內區에는 十二瓣의 蓮華文을 두르고 子房에는 五顆의 蓮子를 놓았으며 外區에는 唐草文으로 장식하였다.

撞座 바로 위에는 鑄型의 接續線이 남아있어 鍾身을 上下로 區分하였는데 線帶바로 위에는 撞座와 交代하면서 또한 乳廓사이에 二軀의 飛天像이 陽鑄되었는데 그중 一軀는 奏樂像이며 다른 一軀는 合掌하고 있는데 모두 飛翔하고 있어 天衣자락은 머리위로 流麗하게 날리고 있다. 鍾肩部에는 四面에 乳廓이 配置되었는데 縱橫三列의 九乳가 蓮瓣으로 장식된 乳座위에 높은 突起를 이루고 있고 乳廓은 下廣上狹의 方形이나 上端은 肩帶에 連結되었으며 乳廓帶에는 三軀의 飛天像이 半圓形의 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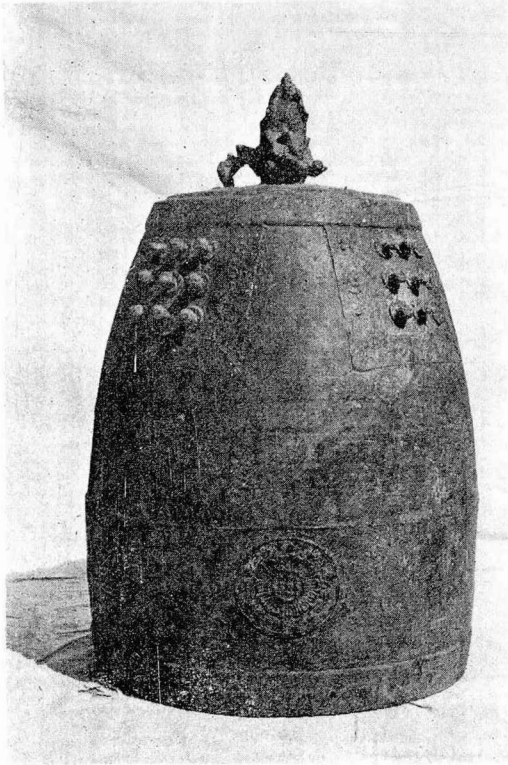


圖 1. 銅 鍾

속에 배치되고 그 사이에는 三寶文과 唐草文으로 메꾸어져 있다. 素文의 肩帶 위에는 雙線의 突起線으로 鍾頂緣端을 마감하였으며 頂上에는 單龍의 鍾鈕와 圓筒이 달려있다. 年代는 高麗初로 추정되며 實測値는 다음과 같다.

鍾身高 六四 cm 口 徑 四七 cm 龍鈕高 一四 cm

二、金 鼓

銅製の 大形金鼓로서 表面에는 陽線帶로서 三區로 分하여 內區에는 十二顆의 蓮子が 配置되고 中區에는 重瓣의 七葉蓮華文을 돌렸으며 外品에는 雲文과 忍冬文으로 장식하였으며 側面에는 兩耳가 있어서 架臺에 달도록 마련되어 있으며 三條의 同心圓文이 돌려있다. 裏面의 口緣은 太線을 둘러서서 外反시켰고 그 면에는 다음과 같은 陰刻銘文이 돌려있다.

己丑六月日 陽寺 般子 一重十三片 八兩棟 梁道人 惠長 改造 大匠 仍久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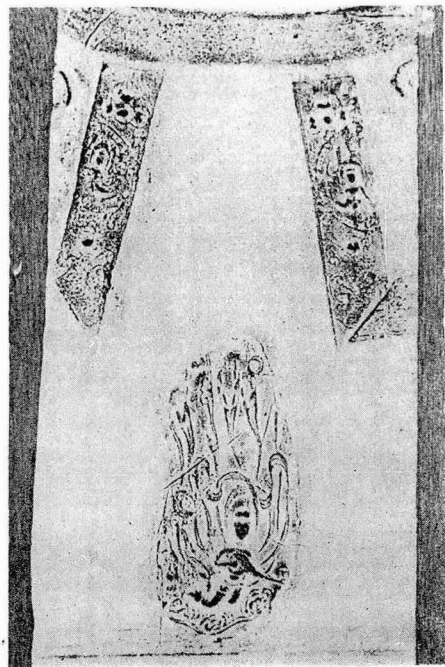


圖 2. 銅鍾飛天紋



圖 3. 金銅菩薩立像

實測値는 口緣幅 四、二 cm 口徑 三〇、五 cm 背面徑 三九 cm 厚 七、五 cm 인데 年代는 高麗로 추정된다.

三、金銅如來立像

八角臺座上 八葉伏瓣蓮華文을 圓形으로 두르고 八角竿柱위의 圓形으로 된 仰蓮臺上에 正面한 菩薩立像이다. 裙衣는 腰部에서 兩脚을 덮어서 仰蓮臺上에 까지 느러뜨리고 天衣는 兩肩에 걸쳐 兩手を 감은뒤에 거의 足部에 이르기까지 身側左右로 流麗하게 흘러 衣端을 反轉시켜 輕快한 感을 나타냈다. 右手는 부드럽게 느리고 左手는 腰部에서 外反하여 寶瓶을 받들고 있다. 顔面은 작으나 豐滿하며 三山冠속에는 結髮이 두드러졌으며 童顔의 모습은 三國時代 百濟佛像의 樣式에서 볼수있는 手法을 지니고 있다. 全體에 약간의 鍍金이 남아 있는데 羅末麗初의 作品으로 생각된다.

實測値는 臺座高 三、七 cm, 佛身高 一〇 cm, 臺座徑 四、二 cm.

招請講演文

日本있는 韓國陶磁器

小山 富士 夫

나는 지금으로부터 四十五年 前에 처음으로 韓國을 訪問한 일이 있습니다. 八·一五前에는 몇번인가 이 나라를 訪問한 일이 있습니다만 太平洋戰爭 後에는 처음으로 韓國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訪問에 있어서 韓國美術史學會의 招請을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요즘은 陶磁器를 구워 내기도 하고 또 이번 旅行처럼 各地에 돌아다니는 일이 많아서 實學 學者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日本에 있는 韓國陶磁器라고 이름 붙인 온들의 이야기도 極히 通俗的인 것이라는 點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과 日本과의 往來는 매우 오랜 옛일로서 우리들이 想像하는 以上으로 먼 옛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日本은 韓國에서 甚은 恩惠를 받아 여러가지를 배워 왔습니다. 말하자면 中國과 더불어 韓國은 日本의 先進國이며 先生이었고, 또 恩인이었습니다. 日本人이 쌀밭을 먹고 살게 된 것도 또는 내가 專問하는 分野인 須惠器를 만드는 技術을 배운것도 韓國의 德分입니다.

奈良時代 平安時代 以前の 遺蹟에서 어떠한 韓國의 遺物이 發見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나의 専門外의 일이기 때문에 言及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奈良時代의 遺蹟이나 奈良時代로부터 傳世되어 온 中國의 陶磁器는 相當한 數가 있습니다만 鎌倉時代 以前の 遺蹟에서 韓國의 陶磁器가 發見된 例를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鎌倉時代에는 어지간히 高麗靑磁나 白磁가 日本에 渡來해서 鎌倉市 福岡縣 新瀉縣 등에서 高麗